

2024년 4월호(제 232호)

# 소중한사람들

그저

흙속에  
아무도 모르게 숨어 있었나봐  
키 작은 들풀이 되었다  
속, 냉이, 썸바귀...

이름도 못 받은  
아주 작은 풀  
키가 작다고  
무시하지 않고  
키가 큰 풀들도  
우쭐 되지 않는다.

서로가 어우러져  
푸른 융단을 만든다.

풀들은  
그저  
오늘 하루  
살아있음에 깊이  
감사한다.

그런 네가  
눈부실 뿐이다.

시/ 유정옥

발행인 이성일, 유정옥

[소중한사람들] 주소 04502 서울 중구 중림로 8길 12 · 전화 02-365-9106 · 팩스 02-365-9104 · [www.ppp.or.kr](http://www.ppp.or.kr)

[소중한사람들힐링센터] 주소 경기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전화 031-582-0191 · [www.pphealing.com](http://www.pphealing.com)



##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이야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 15:26)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막 10:27)

암환우는 낫는 것이 사명이요. 사역입니다!

### 하나님의 성지

“목사님! 시간 내셔서 요 근처에 있는 우리 마을에 저와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설과 비슷한 지형에 아주 잘 지어 놓은 시설입니다.”

위암 3기 판정을 받고 지난 6개월간 열심히 치료하셔서 관해판정을 받으신 이\*설 장로님이 퇴소하시기 전 저와 분당우리교회에서 지은 ‘우리 마을’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날씨 좋은 날들은 한 번 가볼 시간을 못 내다가 계획도 없이 갑자기 ‘우리 마을’을 비오는 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서 15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있어 놀랐습니다. 항상 고속도로로 나가려 할 때 지나던 길인데 산자락에 숨겨져 있어서 인식하지 못했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벌써 몇 번 우리 마을을 찾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시설 구석구석을 보여 주시며 얼마나 건물을 잘 지었는지 설명하셨습니다.

“비록 이렇게 산비탈에 건물을 얹었지만 어디 하나 허투루 쓴 땅이 없어요. 우리 소중한사람들 성지도 이와 같이 지어야 하겠지요.”

장로님의 마음속에는 소중한사람들이 확장하게 되면 이름이 “성지(聖地)”가 되어야 한다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는 거룩할 성(聖)자가 부담스럽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구별한 땅으로 쓰이길 바라는 마음은 저에게도 누구보다 큼니다.

지난 2023년 11월 6일 어머니가 오륜교회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가신 뒤 소중한사람들에는 많은 환우들이 입소하고 싶어 문의가 오고 대기 예약 중입니다. 저들이 입소를 원하는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치유가 있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절대적인 일입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질병을 더 이상 미신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되었지만 인간의 기술이 병을 모두 치유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힘이 있습니다. 의료는 이 자가 치유의 능력에 기대어 질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가 치유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상황은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눈을 치료하는 안과에서 백내장이나 녹내장과 같은 질병을 더디게 진행하도록 도울 수는 있지만 손상된 눈 신경을 다시 살려 맹인이 볼 수 있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암 병은 서서히 암세포가 퍼져가기 때문에 다른 불치병에 비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습니다. 항암, 수술, 방사선과 같은 큰 의료행위들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의술들도 암 병을 직접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암세포가 더 퍼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정도입니다. 우리 몸에 보이지 않게 퍼져 있는 암을 모두 잡아내긴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 수명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은 신의 영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질병을 치료해 가는데 있어서 미신에 기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혹 치료의 일이 결과적으로 허락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거룩하게 채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중한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이곳이야말로 거룩한 곳이라 불러 질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설 장로님은 퇴소 간증을 하시며 이곳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대할 수 있었던 것을 눈물로 고백하셨습니다.

“그 동안 한 교회의 장로로서 많은 교회적 일을 감당했지만 제가 얼마나 불순종한 자였는지 이곳에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잠시 준비한 원고를 읽지 못하시고 눈물을 흘리시자 듣던 환우들이 공감의 되셨는지 모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소중한 사람들은 병이 나을 수 있도록 모든 흐름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지냅니다. 함께 식탁교제를 나눌 때도 서로 식사하기 전 들은 말씀을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운동하면서도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습니다. 이곳에서 세상 노래 듣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인생에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가까이 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려면 장로님께서 불순종하는 삶을 사셨겠습니까? 그 만큼 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니 은혜 받은 자의 겸손한 고백 이었다 느껴집니다.

장로님은 마지막 인사로 소중한사람들 성지가 반드시 확장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저도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가 앞으로 많은 환우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서 치유까지 얻을 수 있는 성지가 되길 기도합니다.

글 / 이성일 목사



# Retreat Center (피정) 오픈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가 제 2 Phase를 시작하였습니다. 소중한사람들 리트릿 센터를 열었습니다.

말씀과 자연, 침을 통하여 힐링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도원과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아래에서 평안한 침을 얻는 것입니다.

- **입소 기준** : 예수 믿는 누구나 침을 원하시면 입소가 가능합니다(다만 정신 질환, 전염병이 있는 분, 이단 단체 및 개인, 기타 공동체 생활이 어려운 분들 제외).
- **입소 기간** : 한번 신청 시 최대 6일을 지낼 수 있으며, 퇴소기준은 토요일 오전입니다. 따라서 목요일에 오셨더라도 토요일 오전에는 모든 입소자가 퇴실하게 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 **입소 비용** : 무료입니다.
- **입소 수칙** : 하루 두 번 예배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믿음이 있는 분이셔야 합니다. 따라서 입소 절차에서 교회 출석을 점검합니다. 또한 공동체 생활이므로 공동 생활을 원치 않으시면 입소가 어렵습니다. 최대 3-4명 정도가 같이 지낼 수 있습니다.

입소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031-582-0191) -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



## 리트릿 센터 이용 후기

### 리트릿 센터를 이용하셨던 분들의 소중한 후기를 담았습니다.

#### 1. 김\*열(5일간)

2년 전 폐암 수술 후 녹막에 전이되어 소사할에 입소하고 있는 남편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리트릿센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서 본 교회 새벽예배를 유튜브로 함께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해서 감사한 시간였습니다. 남편이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흰눈 덮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다 나았습니다. 고쳐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목청껏 외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말씀을 암송해서 선포하면서 걷는 남편의 모습이 믿음직스럽고 멋있었습니다. 참나무 썬질방에서 환우들과 이야기들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하심에 더욱 감사했습니다. 섬기는 모든 분들의 얼굴이 은혜로 환하게 빛나서 저 또한 행복해졌습니다.

#### 2. 김\*애(5일간)

남편을 위해서 소사할에 오게 되었지만 무엇보다도 제게도 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였습니다. 매일 두 번 드리는 예배와 환우들과 함께 하는 중보기도 시간이 감격이었고 좋았습니다. 환우에게 가장 중요한 공기과 물이 있는 소사할에서 진정한 침을 누리고 새 힘을 얻어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길 소망합니다. 포항에서 볼 수 없는 눈도 마음껏 보고 트레킹도 하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우가 있으면 이곳 소사할을 소개해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해 집니다.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3. 최\*순(5일간)

세계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수질암에 걸린 채 13년이 되었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의 간증을 듣고 누워 있던 제가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깊은 산속에 있는 소사할에서의 하루하루가 감동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사랑이 가득 담긴 건강 식단에서 사랑이 흘러 넘쳤습니다. 예배의 시간속에서 사랑의 온기가 가득 느껴졌고 온기가 식을까봐 하루 두 번 드린다는 말씀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무겁게 조여드는 목의 느낌이 3일이 지나면서 가벼워졌고 유정옥 사모님의 기도 후에 거울을 통해서 제 혀를 보니 자주빛의 검은색에서 연한 분홍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치료를 하신다고 하더니 이것인가? 흥분으로 잠이 다 달아났습니다. 의사의 말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지만, 암은 하나님이 고치신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 4. 김\*희(7일간)

저는 다니엘 기도회에서 유정옥 사모님의 간증을 듣고 소사할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사할에 전화했다가 리트릿센터에 신청하게 되었고 영혼유이 침을 얻는 일주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유정옥 사모님의 간증을 들 때 정말일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경험을 해보니 모든 것을 사랑으로 사역하고 계시는 것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하루 두 번의 예배는 마음이 힘든 암환우들에게 단비가 되었고 서로서로의 중보가 하나로 묶어주는 가족과 같았습니다. 소사할에 오기전에는 소화가 잘 안되었는데 물이 좋아서 소화가 잘되어서 맛있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 5. 김\*주(6일간)

소사할에서 6일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최고 좋은 것으로 주시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암환우들에 대한 많은 수고와 헌신을 보면서 그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와 찬양, 기도가 회복된 것입니다. 대학교때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고자 했던 열정이 어느새 식어버리고 세상 풍파에 떠밀려 살았는데 그때를 생각하니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암환우의 가족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암환우는 더 힘들거예요. 소사할에서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 6. 박\*희(5일간)

소중한사람들에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올해는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서 기진맥진 한 상태에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주변 환경과 섬기는 분들의 세심한 배려와 여유로운 환우들의 모습에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암환우들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사람들이 암환우들의 섬터가 되어 이곳에서 기도와 찬송이 계속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많은 암환우들을 섬길 수 있도록 확장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7. 최\*나(5일간)

주님의 귀한 기도의 성산인 소사할에 올라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온전히 기도와 말씀,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식사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배려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조금씩이라도 일반식을 드시는 엄마의 모습에 소망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주님께서 이곳의 환우들과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암환우들 임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밝고 긍정적인 모습에 놀랐습니다. 소사할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 8. 류지숙(6일간)

전주에 사는 제가 청평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오게 되었습니다. 암 환자로 3년이 지나고 4년째 살아가면서 느낀 점은 결국 믿음 곳은 하나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못해서 주님의 위로에 목말라하면서 주님께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소사할에 와서 예배와 중보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시간에 목소리 높여 찬송부르던 감동과 중보로 기도하던 그 마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시설도 훌륭하고 감동이었고 풍경도 너무나 멋진 곳입니다. 아마도 이곳에서의 성경 충만한 삶이 회복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9. 서\*순(6일간)

소사할에 와서 가장 좋았던 것은 하루에 두 번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암환우들을 사랑하는 이성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속소도 깨끗하고 식사도 정갈하고 맛있었습니다. 소사할에서 많은 사랑받고 힐링하고 갑니다. 소사할을 통해 더 큰 일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야 못해도 돼! 틀려도 괜찮아!

큰아들의 학부모 공개수업이 잡혔습니다.  
 아들은 도움반에서 국어와 수학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공개수업때 국어수업을 한다고 하니 제 마음에 여러 갈등이 생겼습니다.  
 선생님은 아이가 함께 할 수 있는 수업을 계획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아이가 어려워할 부분도 분명 있을 거라고 말씀해주셨어요.  
 ‘공개수업에 안 간다고 할까’  
 ‘여느때처럼 그 시간에도 도움반에서 그냥 공부하게 할까’

‘아니야, 우리 아이가 교실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선생님은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시는지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지도 몰라’

여러 복잡해진 마음을 안고 결론을 내리기 전, 공개수업을 가고 싶지 않은 저의 마음을 점검하며 써내려 갔습니다

1. 아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게 될까 봐  
 2. 아이의 엉뚱한 대답으로 내가 아이를 창피하게 생각할까 봐  
 3. 다른 학부모들이 아이를 보며 자기아이에게 같이 놀지 말라거나 멀리하라고 할까 봐  
 이렇게 써내려가는 중에 3번이 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럴싸한 핑계를 대서라도 가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3번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이를 창피해 할까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뱉는데 눈물이 줄줄 흘러 내렸습니다.  
 아이보다 타인의 시선과 표정에 더 신경을 썼던 나였음을 고백하고 여전히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런 제 마음을 드릴수록 새로운 생각이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공개수업은 하나님이 내 마음과 믿음을 점검하시는 기회야’  
 ‘타인의 시선과 표정에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황희'에게 집중하자’

비로소 마음에 평안함이 임했습니다  
 가벼워진 발걸음으로 아이교실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주목하시는 것을 느끼니 아이를 향한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래, 황희야, 넌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이야. 못해도 돼, 틀려도 괜찮아’

글 / 박선인

안녕하세요 목사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가운데 목사님과 집사님들!  
 사랑하는 교회 목사님, 집사님들, 2024년 2월 20일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후원금을 받아 나머지 부분을 계속 짓고 있었는데,  
 저희 집을 지은 건축자들이 건축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3주 전에 다시 방문하여 남은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집 앞면과 옆면에 타일을 붙이고 집 측면 바닥 라이닝도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집의 모든 건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집으로 가는 길을 평탄하게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붓는 것도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도록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와 목사님, 집사님들께 감사드리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와 집사님, 목사님과 가정들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길 빕니다.  
 2024년 4월 21일 오후 4시 우리 가족은 넓은 집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회, 목회자, 집사님들을 초대하여 베트남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라며,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프로그램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이탄투아 목사님.  
 완성된 집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 2024년 3월 청평 소중han사람들교회 헌금

●확장 헌금●  
 강금례(1,000,000) 김명옥(1,000,000) 김연자(1,000,000) 김옥겸(2,000,000) 도주은(1,000,000) 무명(100,000) 박상준(1,000,000)  
 정일만(2,000,000) 정현명(5,000,000) 하지인(1,000,000)

●목적헌금● 정미영(20,000,000) 조은래(6,594,974)

●천사헌금● 김연자(1,000,000) 김자우(1,000,000) 송미령(1,000,000) 이선우(1,000,000) 이연주 이영섭

●심일조●  
 문창호(300,000) 박용범(280,000) 변영미(500,000) 성혜숙(200,000) 송형숙(900,000) 오태수(250,000) 이상일(300,000)  
 정일금(310,000) 최영자(130,000) 추연국(200,000) 황우진(140,000)

●부활절헌금●  
 김계숙(100,000) 김명순(30,000) 문창호(100,000) 박철민(20,000) 박태희(100,000) 변영미(100,000) 서금자(50,000)  
 오태수(10,000) 이성일,박선인(200,000) 이은지(50,000) 장은미(100,000) 정현명(200,000) 최영자(50,000) 황순산(100,000)

●감사헌금●  
 강인석(50,000) 계용돈(100,000) 고정형(10,000) 구민정(20,000) 구현서(600,000) 권오성(200,000) 김계숙(450,000)  
 김나형(50,000) 김명석(50,000) 김미희(50,000) 김민수(250,000) 김병식(200,000) 김보영(50,000) 김사임(70,000)  
 김선아(50,000) 김수진(100,000) 김순옥(100,000) 김애리(150,000) 김연자(470,000) 김영관(100,000) 김영순(30,000)  
 김영자(120,000) 김은미(100,000) 김은숙(20,000) 김은영(20,000) 김정규(52,000) 김종순(200,000) 김태영(100,000)  
 김태희(50,000) 김태희(60,000) 김하준(10,000) 김현주(50,000) 김혜림,김은재(100,000) 김혜영(50,000) 김혜은(20,000)  
 나상운(400,000) 나현선(40,000) 남현희(50,000) 노은순남가족(643,700) 당선화(500,000) 도성구(500,000) 류병완(100,000)  
 류성문(100,000) 류성문,김혜선(200,000) 문창호(600,000) 민정선(20,000) 박경애(500,000) 박광숙(100,000) 박래동(30,000)  
 박상준(140,000) 박선인(148,588) 박성민(20,000) 박옥숙(400,000) 박지우(10,000) 박지혜(100,000) 박춘자(300,000)  
 박태희(350,000) 박하경(100,000) 박하민(90,000) 방윤순(50,000) 배은경(200,000) 박현미(20,000) 변영미(100,000)  
 변요섭(60,000) 서강일(100,000) 서금자(50,000) 서은정(100,000) 서재기(100,000) 서종열(600,000) 성경희(100,000)  
 성찬영(500,000) 소한태(10,000) 송기승(60,000) 송병희(40,000) 송연숙(100,000) 송형숙(1,100,000) 양경임(50,000)  
 여명자(20,000) 연영희(10,000) 염애석(10,000) 오태주(50,000) 왕규현(1,000,000) 우경희(30,000) 유건선(10,000)  
 유명희(940,000) 유재기(50,000) 유정옥(530,000) 유진선(10,000) 윤화영(200,000) 이경남(300,000) 이경애(50,000)  
 이경하(20,000) 이경희(50,000) 이광아(100,000) 이돈철(10,000) 이명승(30,000) 이명자(300,000) 이병설(900,000)  
 이병희(150,000) 이상길(20,000) 이상태(200,000) 이상숙(20,000) 이상일(400,000) 이상기(10,000) 이양복(10,000)  
 이영훈(100,000) 이원상(40,000) 이윤선(150,000) 이은주(400,000) 이은지(310,000) 이재희(50,000) 이정호(30,000)  
 이준숙(30,000) 이중삼(700,000) 이지아(150,000) 이현복(30,000) 이화숙(500,000) 임경남(10,000) 임동규(270,000)  
 임미숙(50,000) 장은미(160,000) 전대진(50,000) 전은유(50,000) 전정옥(300,000) 정동익(60,000) 정영순(300,000)  
 정영신(500,000) 정은이(100,000) 정일금(140,000) 정재운(80,000) 정현명(700,000) 조경미(100,000) 조귀옥(50,000)  
 조옥선(20,000) 조정덕(100,000) 지영순(100,000) 최경순(100,000) 최경주(50,000) 최성희(20,000) 최성희(30,000)  
 최영자(30,000) 최영희(10,000) 최은주(600,000) 최혜영(500,000) 추회정(50,000) 하미애(150,000) 한건선(50,000)  
 한창식(300,000) 한혜중(100,000) 허인숙(20,000) 현성원(30,000) 황순산(140,000) 황우진(120,000) 황정애(100,000)

●기관 후원 헌금●  
 가락제일교회(100,000) 계영산업(100,000) 국회기도회(50,000) 목회지원센터(200,000) 사랑의교회(100,000) 서울서교회(100,000)  
 씨브웨이터미널점(50,000) (주)토탈이앤씨(100,000)

●CMS헌금●  
 강영숙(20,000) 계용돈(10,000) 공은영(30,000) 김명화(30,000) 김성자(20,000) 김영신(30,000) 김운집(30,000)  
 김인경(50,000) 김준희(20,000) 김지영(10,000) 김진영(10,000) 김태희(20,000) 김현정(100,000) 김혜원(30,000)  
 나지용(15,000) 도주은(100,000) 문옥자(20,000) 문희순(10,000) 민현정(10,000) 박경미(20,000) 박상준(30,000)  
 박성환(50,000) 박완준(50,000) 박효정(30,000) 변영미(50,000) 서종열(10,000) 손미경(50,000) 송연숙(50,000)  
 양운정(100,000) 오연희(30,000) 유부홍(100,000) 윤성록(50,000) 윤인초(10,000) 윤화숙(30,000) 이금희(100,000)  
 이다연(10,000) 이관주(50,000) 이서림(100,000) 이송은(30,000) 이원인(150,000) 이윤선(50,000) 이은숙(10,000)  
 이정자(50,000) 이주현(10,000) 이준영(10,000) 이찬선(5,000) 이해숙(10,000) 이해경(50,000) 임성숙(30,000)  
 장미경(20,000) 장소현(30,000) 장소아(10,000) 정마선(50,000) 정예은(5,000) 정은경(10,000) 정의영(30,000)  
 정현명(50,000) 조남남(20,000) 조영실(40,000) 진성권(50,000) 최성(20,000) 최신숙(10,000) 최은숙(10,000)  
 최은주(10,000) 최정임(20,000) 허정민(10,000) 하정숙(20,000) 하혜원(10,000) 한명희(30,000) 홍금주(10,000)  
 황지훈(100,000) AhnAnna(100,000)

## 청평힐링센터 2024년 3월 - 수입·지출 보고서

수입항목	금액	지출항목	금액
목적헌금	26,594,974	자동차 주유비 및 운영비	1,000,738
천사헌금	4,000,000	자동차 할부금 및 보험료	713,000
심일조	3,510,000	식자재구입비	16,066,743
부활절헌금	1,210,000	전기요금	6,893,810
감사헌금	27,434,288	가스요금	982,800
CMS헌금	2,555,000	회제보험료	1,200,000
		CMS사용료	66,000
		KT요금	638,510
		비품구입비(소모품)	712,880
		공사비 및 집기구입	7,820,300
		안전점검비	1,267,100
		세금	99,820
		급여인건비	16,945,830
		사회보장보험비	1,714,530
		병원대여금	3,000,000
		차용금 반환	7,000,000
금월 수입 합계	65,304,262	지출 총액	66,122,061
전월 이월금	3,927,341		
차용금			
총 수입 합계	69,231,603	금월 잔액	3,109,542

### 소중han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소나무 헌금

경제적으로 너무 빈곤하여 병원에서 자기 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우들에게 자기 부담금을 지원해서 치료를 받게 해주는 의료헌금입니다.

2024년 03월 씨앗헌금 후원 : 김행심(10,000), 성찬영(500,000), 이민석(10,000), 이성숙(20,000), 류성문(1,031,616), 한종석(200,000)

2024년 03월, 총 3명의 환우에게 2,540,000원을 병원비로 지원하여 환우들이 치료비 부담없이 마음 놓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나무 사역 후원 계좌** 농협 351-1158-7628-73 소중han사람들교회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에 천사회원이 되어주세요.

## 암환자들의 안식과 영혼구원을 위한 심터

소중한사람들교회에서는 암 환우들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기 위해 암 환우 힐링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암은 가족 한사람의 질병이 온가족의 고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우와 가족들을 전인적으로 돌보아드리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께 인도 될 수 있도록 오직 환우와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천사회원은 후원하신 후에 성함,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010-2210-9106).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 운영사업에 천사회원이 되셔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심으로 계속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 청평힐링센터 운영천사회원 3월 가입자 명단 (6명)

442. 이영섭 443. 이선우 444. 김연자 445. 송미령 446. 김차우 447. 이연주

### 운영천사 회원명단

1. 이원욱	2. 최미경	3. 최경자	4. 유재선	5. 이명구	6. 김수영	7. 실송근	8. 이희수	9. 조주영	10. 단혜봉	11. 박희홍	12. 정중영
13. 조현신	14. 정경석	15. 이문희	16. 박종배	17. 이종성	18. 김갑희	19. 차은옥	20. 성기빈	21. 박은희	22. 박영기	23. 박재범	24. 박순화
25. 임광래	26. 한정택	27. 이상자	28. 강은희	29. 권희규	30. 송광수	31. 김덕상	32. 윤철현	33. 전등화	34. 이혜란	35. 전미리	36. 김영신
37. 임승택	38. 장승훈	39. 이춘자	40. 오병화	41. 최수지	42. 허상익	43. 송영옥	44. 최범락	45. 정수영	46. 정지현	47. 문철자	48. 정한중
49. 정혜강	50. 최숙자	51. 윤 원	52. 최별락	53. 최유은	54. 최예은	55. 박예애	56. 정등준	57. 손영옥	58. 권경희	59. 사재신	60. 허하기
61. 이원연	62. 심 형	63. 이상수	64. 박해숙	65. 이상준	66. 최수경	67. 나선미	68. 김영관	69. 천우규	70. 김대현	71. 김희정	72. 구남진
73. 이종권	74. 정동영	75. 김양숙	76. 이주열	77. 변현정	78. 배경하	79. 최수연	80. 박지현	81. 이정은	82. 이정은	83. 신상란	84. 정호기
85. 정희정	86. 정예은	87. 박효정	88. 허정중	89. 김미원	90. 신형진	91. 변영은	92. 유성진	93. 정주성	94. 김갑희	95. 박철홍	96. 홍명주
97. 김현숙	98. 우 명	99. 유성진	100. 성낙희	101. 권홍경	102. 황보순	103. 이혜영	104. 황정아	105. 황현동	106. 민성태	107. 김현숙	108. 고근진
109. 김승연	110. 계영산업	111. 그레이스 한	112. 이미린 김	113. 이향순	114. 이등주	115. 안서영	116. 도문식	117. 김명성	118. 현은희	119. 유성진	120. 권경도
121. 김현숙	122. 정상희	123. 박유민	124. 이현나	125. 이용옥	126. 이민자	127. 김현숙	128. 이미영	129. 조영석	130. 박차연	131. 김연희	132. 박순화
133. 안정순	134. 김태연	135. 박해숙	136. 양수진	137. 심재록	138. 김현숙	139. 오봉자	140. 이태종	141. 김다비다	142. 전자아	143. 조혜숙	144. 이향춘
145. 박해정	146. 민인나	147. 이근형	148. 윤희진	149. 윤은주	150. 최영희	151. 청평힐링	152. 김화연	153. 안정희	154. 김승숙	155. 문예은	156. 임순미
157. 고영복	158. 김미희	159. 김사라	160. 박준영	161. 박효숙	162. 이석우	163. 이순주	164. 이혜리	165. 이혜슬	166. 이재용	167. 이종인	168. 정중영
169. 김필란	170. 유선정	171. 이강순	172. 황옥남	173. 김희성	174. 이원정	175. 박경근	176. 김진임	177. 신진경	178. 김 영	179. 이등구	180. 문종만
181. 강인숙	182. 오정민	183. 문지연	184. 이다정	185. 이다정	186. 이등구	187. 송희종	188. 이하운	189. 장은호	190. 김순애	191. 인준복	192. 이명화
193. 유광현	194. 이등구	195. 이종립	196. 안성훈	197. 박은순	198. 이영수	199. 윤디오	200. 최근권	201. 김호년	202. 김혜원	203. 장승아	204. 정영신
205. 박영대	206. 양옥경	207. 오재원	208. H	209. 박성운	210. 홍지은	211. 이희숙	212. 권은미	213. 무명	214. 황산란	215. 박미행	216. 유민성
217. 우파아슈사	218. 이은주	219. 박성운	220. 도영화	221. 박순화	222. 이시은	223. 정호진	224. 김순정	225. 김옥연	226. 윤채원	227. 원적외선원재료	
228. 김혜숙	229. 김수현	230. 장만숙	231. 김숙희	232. 남원희	233. 남지영	234. 남혜원	235. 김정자	236. 박선순	237. 오준석	238. 노은순	239. 이상혜
240. 최혜경	241. 임계숙	242. 이승재	243. 연규윤	244. 김진경	245. 김선영	246. 손태정	247. 홍수연	248. 이인순	249. 장혜실	250. 한동석	251. 한희숙
252. 김예애	253. 박정희	254. 한경숙	255. 이기열	256. 정은영	257. 이우주	258. 이우경	259. 최영훈	260. 김미옥	261. 김등수	262. 조자영	263. 이선
264. 최영애	265. 장승아	266. 이현미	267. 이주영	268. 이은주	269. 최혜진	270. 손현미	271. 송은희	272. 윤은주	273. 변영진	274. 최명자	275. 김성근
276. 김등환	277. 김주희	278. 이가경	279. 신현규	280. 이현미	281. 민원홍	282. 이은주	283. 민노영	284. 이주영	285. 김승정	286. 홍부녀	287. 조범호
288. 장영자	289. 이우승	290. 조아나	291. 민현정	292. 박승천	293. 윤주등	294. 장승아	295. 조범호	296. 김명희	297. 홍순경	298. 이상림	299. 김무순
300. 양호경	301. 김주형	302. 권희자	303. 정영애	304. 조아나	305. 김옥경	306. CHOMEARIN	307. 작진관	308. 공은경코사	309. 권유승	310. 방원	311. 남기혁
312. 김소현	313. 윤종문	314. 박재연	315. 이하리	316. 민요한	317. 최홍석	318. 정복숙	319. 김사진	20. 최봉관	321. 이복순	322. 류승희	323. 김영혜
324. 이상아	325. 750204	326. 김인주	327. 김성규	328. 최혜경	329. 이약신	330. 이경옥	331. 민옥신	332. 장향자	333. 이은경	334. 유성진	335. 이상운
336. 최영애	337. 유지혜	338. 채혜순	339. 전성호	340. 정찬영	341. 김은정	342. 윤은혜	343. 명은자	344. 정현지	345. 이호은	346. 김진숙	347. 정영신
348. 채지영	349. 양호정	350. 유성진	351. 김영남	352. 유철우	353. 유은오	354. 유현주	355. 윤종옥	356. 최유은	357. 전나라	358. 허정만	359. 한승희
360. 도영화	361. 서정민	362. 정영신	363. 오창홍	364. 정찬영	365. 권등준	366. 박지영	367. 장순순	368. 강신궁	369. 전영신	370. 송병석	371. 정향자
372. 정진숙	373. 최혜경	374. 서혜원	375. 노아방주	376. 강인석	377. 최영숙	378. (해트)이연씨	379. 후원금	380. 강민옥	381. 강진옥	382. 강현옥	383. 임지영
384. 보라소금교회	385. 정영신	387. 김태희	388. 박상준	389. 유등호	390. 박병희	391. 박진미	392. 심규진	393. 김계석(오크성가대)	394. 이윤실	395. 서대원	
396. 이정현	397. 김순옥	398. 정현영	399. 도영화	400. 김영희	401. 변영록	402. 이화숙	403. 김미자	404. 김순하	405. 이병실	406. CULVIZL	407. 강연구
408. 강정화	409. 이경재	410. 민수희	411. 조규철	412. 윤경일	413. 오형석	414. 이등남	415. 이지혜	416. 이현순	418. 김영래	419. 조미경	420. 유문재
421. 김윤순	422. 박경철	423. 황우건	424. 서종열	425. 신철수	426. 이성희	427. 박수정	428. 김숙희	429. 정영신	430. 강근내	431. 장은미	432. 박춘자
433. 박경철	434. 임주찬	435. 최승순	436. 김연자	437. 장향자	438. 김계숙	439. 박미순	440. 김연자	441. 구현주	442. 이영실	443. 이선우	444. 김연자
445. 송미령 4	46. 김차우	447. 이연주									

소중한사람들 암 환우 힐링센터를 위한 천사회원(구좌 100만 원, 분납 가능)과 씨앗헌금(자유 기부)에 참여하려면 아래 전화로 문의하고 계좌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전화 02-365-9106 | 송금계좌 국민은행 97195304571 소중한사람들교회**

## 청평암환우 힐링센터



▲ 네송이꽃과 벚꽃



▲ 도라지 다듬어요



▲ 목사님 귀빠진날 축하드립니다



▲ 벚꽃비 맞으며...



▲ 벚꽃하늘 아래



▲ 성경일독사상-정일금님



▲ 성찬식



▲ 소풍갔어요



▲ 왕규현님 세례식



▲ 유기농채소다듬기



▲ 전도복발아외우업



▲ 찜질방 동기들



▲ 찜질방이 최고!



▲ 최고의밥상



▲ 트래킹으로 건강을...

### 청평힐링센터후원물품



▲ 건강음료-최은주님 ▲ 개간-정일금님 ▲ 떡-왕규현님 ▲ 떡-이윤실님 ▲ 레드향-수원평생교회 ▲ 자간-정현영님 ▲ 한라봉,천혜향-김연자님 ▲ 한라봉-유명희님



# 목요 Precious Worship

소중하신사람들 힐링센터는 매주 목요일 중보기도회를 가집니다. 동역자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박\*준 님(전립선암 4기) 양쪽 골반뼈 전이 - 폐암은 12mm로 변동이 없고 간유리염유화로 6개월 뒤 pet-ct, mri, 폐 기능 검사 후 수술 예정입니다. 2월27일 심장내과 부정맥 검사결과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며, 전립선 암검사결과 결과 뼈 속이 있는 암은 사라졌고, 전립선에 있는 암은 큰 변동이 없으므로 항암제에 내성이 생겨서 다음번에는 항암제 주사한 가지들 더 추하다고 합니다. 잘 치유되기를 소망하며,
2. 장\*영 님(혈액암) - 급성백혈병으로 작년 2월부터 항암중이며 총12차례의 치료과정 중, 현재7번째까지 마쳤습니다. 남은 치료과정도 부작용과 재발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기를,
3. 김\*숙 님(유방암) - 2월6일 흉부, 복부 CT 검사 결과 0.7cm 정도 되는 암은 깨끗이 없어졌고 주변의 모래알 만한 암세포 몇 개만 남아 있는데 말씀에 힘을 얻어 믿고 기도하며 남은 암세포도 다 소멸시켜 주시길,
4. 김\*자 님(당뇨와 재발 자궁경부, 질, 직장전이) - 직장암이 더 커져서 2월20일 면역항암을 다시 시작했고, 3월19일의 주사효과가 좋은한 달에 한 번씩 맞기로 했습니다. 고의 항암제라 실손보험과 혈액암협회 회의 보조도 잘 받아 재정적인 큰 부담 없이 잘 맞을 수 있기를,
5. 장\*미 님(유방암, 다발성 폐전이) - 항암제를 4차까지 진행했습니다. 투약 후 통증수치가 많이 떨어지고 통증도 줄었습니다. 앞으로 내성 없이 암세포가 다 소멸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6. 김\*희 님(직장암) - 치료로 인한 통증으로 잠을 잘 못자고 있으며, 항암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발과 다리에 부종이 심한데 속히 치유되기를 소망하며, 골다공증으로 인해 척추에 압박골절이 4개나 있어 앉기가 불편합니다. 뼈가 든든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7. 송\*숙 님(낙연수막전이, 척추뼈전이) - 양쪽 폐, 척추뼈, 뇌 낙연수막에 붙어 있는 많은 수의 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소멸되며, 암으로 인한 통증, 심한 두통과 구역구토, 배 통증 등이 통제되고, 심장에 물이 차 있는 것, 항암부작용으로 생긴 빈맥, 감성불안정, 입안 염증등도 치유되기를,
8. 김\*식 님(위장암, 전립선암) - 4월1일, 18차 위장암에 대한 항암을 마쳤습니다. 치료와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암이 사멸되는 기적이 있기를,
9. 문\*호 님(위장암) - 폐 조직 검사 결과 새로운 암 발생으로 방사선치료 4회 예정이며, 방사선 치료로 폐암이 깨끗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복부 통증으로 방사선 10회를 마쳤는데 등 부분의 통증이 심해 뱃속 깊은 곳에 방사선치료 10회 추가 할 예정이며, 모든 치료과정도 주님이 주관하시어 부작용 없이 통증도 사라지고 암도 모두 없어지기를,
10. 유\*희 님(유방암 3기) - 항호르몬제 아로마신을 막는데 부작용은 최소화 되어 치료와 효과가 나타나서 시는 날까지 전이와 재발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11. 홍\*산 님(대장암, 간전이) - 기존의 항암제는 내성이 생겨서 2월27일 새로운 항암제로 비무사 3차까지 항암했습니다. 4월25일 CT간검사, 흉부CT를 검사합니다. 새로 바꾼 항암제가 내성이 생기지 않고 항암치료 효과가 극대화 되기를 바라며,
12. 오\*주 님(난소세포암) - 3월12일 혈액, CT 검사 결과 1.5에서 3.7cm로 암이 커졌다고 합니다. 기존 항암제를 바꾸어서 3월19일부터 항호르몬제 "페마라젠"을 복용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 통증과 부작용을 없게 하시고 크기는 줄어들고 재발과 전이 없이 깨끗이 소멸되며, 4월16일 검사가 있는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13. 이\*지 님(문상식육종) - 조혈모세포 이식입양이 4월22일로 정해졌으며 4월15일 무관심 입원 예정입니다. 모든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께 간섭하셔서 이식 후의 모든 상황(회복, 숙주반응, 거제도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14. 나\*운 님(폐암전이) - 2013년 신장암, 2019년 위장암 전이, 2024년 폐암 전이가 되었지만 완전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으며,
15. 곽\*정 님(난소암) - 6차 항암으로 표준치료를 마쳤으나 유전자 HRD(상동체조형결함)검사에서 수치가 높게 나와 항암력을 2년간 복용하며 치료 예정이지만 약 복용없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깨끗이 치료 받기를 소망하며, CT상에 나타난 복수에 물집과 염증이 깨끗이 사라지며 어떠한 상황에도 응급상황이 발생하지 않고 몸의 건강이 회복 될 수 있도록,
16. 이\*숙 님 (유방암,간 뼈전이) - 모든 암으로부터 완전한 치유받기를,
17. 박\*민 님(뇌종양) - 4월 3차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뇌종양, 난종 깨끗이 치료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뇌종양뿐 아니라 내년, 영성, 인격도 고쳐 주시길,
18. 홍\*진 님(유방암, 간전이) - 모든 치료 과정을 주님의 계획대로 인도하시 악의 내성과 전이 없이 종양은 완전 녹아내려 관해 판정을 받고 수술 하지 않고 사라지기를,
19. 서\*열 님(대장4기, 뇌막전이) - 2년 10월 폐암 수술 후, 작년 10월 폐암이 뇌막에 전이된 후 부작용 없이 먹는 표적항암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다음 4월26일 검사 결과에서 완전관해 판정으로 라파 여호와의 찬양할 수 있도록,
20. 김\*순 님(유방암3기, 척추뼈전이,간,폐,소뇌전이) - 2년째 간, 척추뼈 전이로 표적항암제, 표적주사, 항암주사로 치료중 뇌전이까지 와서 방사선 치료중이며, 4월5일 뇌MRI, 4월15일 간, 폐 CT검사, 4월24일 진료 및 결과를 기다리는데 좋은 결과 있기를,
21. 홍\*현 님(폐암 3기) - 23년10월, 식도암1기와 폐암 3기를 선고 받고, 식도암은 12월4일 수술, 폐암은 수술이 불가능해서 3차례 3주 간격으로 항암(독소표적면역 동시투여)을 하여 암을 축소시켜 수술하기로 하였고 수술범위내로 축소되어 3월9일 좌측 폐 하단부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4월2일 수술결과가 좋은 일을 들었습니다. 4월3일 혈액종양내과 교수로부터 5월 CT검사 후 향후 치료 방향을 정하였는데 완전한 치료의 결과가 있기를,
22. 이\*애 님(유방암) - 몇 개월 동안 먹던 수면제들 안정제로 바꿨습니다. 또한 온 몸의 통증으로 진통제를 먹고 있는데 전부 끊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항암제들 바꾸어 6번(12차례) 투여를 해야 하는데 부작용 없이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23. 서\*자 님(유방암 4기) - 4월3일에 조직검사, 4월8일부터는 항암을 다시 시작합니다. 몸이 잘 회복되어 항암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잘 이겨내며, 백내장 수술도 잘 이루어지기를,
24. 임\*규 님(복막종양) - 2023년 7월에 암이 확진되어 항암치료 7번을 하였는데 2월27일 CT결과 간으로 전이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3월11일에 항암 약을 바꾸어 3차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항암제 치료 효과가 100% 발휘하여 전이된 부분은 물론 복막암세포도 박멸되어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암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회**

-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시
- 장 소 : 소중한사람들 암환우 힐링센터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큰갈월로226)
- 말 씀 : 유정옥 사모
- 기도회 인도 : 이성일 목사

※기도모임을 함께할 재능기부자들을 기다립니다.※  
(PPT 만들기/전반기타/그 외 악기연주)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유정옥사모의 설교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로드 되는 영상의 알림을 받으시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소중한사람들 힐링센터 [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http://www.facebook.com/preciouspeoplehospice)
 Hospice Precious People [www.youtube.com/user/miholoveone](http://www.youtube.com/user/miholoveone)

## 목요기도회

